

학교 내 결핵소집단 발병에 대하여

글_이화연(대구 경덕여자고등학교 보건교사)



학교 내 결핵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교사로서 29년 일하는 동안 작년에 처음으로 결핵 양성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본교 1학년인 그 학생은 5월 건강검진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았으나 8월초에 인근 병원에 감기로 진찰 갔다가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여 결핵이 발견된 사례입니다.

8월 20일 개학하여 담임으로부터 TB균 발견 도말검사 양성으로 치료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보건실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 처리를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청에 문서로 결핵환자 발생 전염병 보고를 하고, 전교생에게 결핵에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결핵예방 관리를 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역보건소에 가서 학반 단체검진하였는데 8월 25일 접촉자 35명을 PPD 반응과 방사선검사 결과 PPD 양성 학생 6명 중에 인터페론 감마 검사에서 1명이 양성으로 나와 예방화학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학반 단체 검진 시에 어려운 점은 학생을 수송하는 것으로 본교는 보건실을 담당치치예산으로 학생 버스비 2회를 계산하여 4명씩 택시를 타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보건소에 갈 때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차분하게 일처리를 잘하셔서 순조로운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 내 소집단 결핵관리에 있어 특히 여학생들의 정신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제각 6개월 지속적인 관리를 한 학생은 매일 보건실에 와서 투약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는데 몸무게는 41kg로서 투약을 잘하는 편
이나 친구들이 알게 될까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왜 자신이 결핵이 걸렸는지 우울증까지 호소하였습
니다.

약물 투여 2개월 정도가 되자 자주 울고 보건실에 누워있
고 불안하여 잠도 잘 못자고 공부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
였습니다. 저는 “6개월만 약물치료 잘하면 완치되어 건강해지니
힘내자”며 위로해주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
라 건강이라 생각하였기에, 함께 과일도 나누어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용기를 내도록 격
려하였습니다. 학부모와 상담하여 영양과 스트레스 해결 등 건강 관리에 대해 논의하고, 어머니
도 낙심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10월경에는 몸무게가 39kg로 내려가고 학습 불
안이 심하여 자퇴를 생각한다고 울면서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을 안 먹고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 많아 꼭 아침을 먹고 등교할 것을 약속하여 규칙적인 식생활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결핵은 병변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는 뚜렷한 증세가 없어 발견되기 어렵고 특히 학생들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욱 확산되기가 쉬우므로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접촉자 검사 시 다른 학생들이 알지 못하도록 결핵예방 검사를 한다고 설명하
여 결핵에 걸린 학생이 학급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결핵 발생 시 동일학급에서 도말양성 환자 1명 또는 활동성 2명 발생 시 해당 학급전
체를 접촉자로 보며, 학급 상관없이 동일학년에서 도말양성 2명 이상 혹은 활동성 환자 3명 이상
시에는 동일 학년 전원을 접촉자 범위에 넣고 PPD반응검사, 흉부방사선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 학생은 병원에서 완쾌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료가 완치되었을 때 학생의 어머니와 이모님이 떡과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서로 안고 등 두
드리면서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지요. 저로서도 2학기 6개월간 결핵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학
생을 지켜보며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